

전북특별자치도 이뤄낸 민주 전북도당

“올해, 공공의대법 통과 총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이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2023년 계묘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023년 한 해 ‘공공의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성주·윤준병·이원택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2년을 돌아보고 새해 도당 차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한병도 위원장과 이들 의원들은 지난 한 해를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아쉬움이 큰 한 해였지만 새로운 정부의 일방적인 모습에 걱정스러운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를 향해 “새 정부가 화합의 모습을 보이면

총을던데 일방적인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우리 전북도당은 이 같은 퇴행을 막아내고 지역발전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와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이뤄냈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새해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박혀있는 공공의대법을 돌파해 또 다른 기쁨을 드리겠다”고 자신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올해 전북도와 함께 의미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

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성주 의원(전주병영)은 “입법과정에서 보면 여야의 이해보다는 민간의 이해관계가 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후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에는 어렵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의미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도정 등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라며 “민선 8기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대한 협치하고 개인적으로 지역이 소멸되는 모습속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대선 패배 등으로 지난 한해 아쉬움 커尹정부 독주는 심각민주주의 복원 등 위해 최전방서 싸울 것

“전북도와 기업 투자 지역 소멸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 시군 자립발전 토대 마련”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해 안보에서 민생까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도 9조원 시대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윤 정부 폭주에 맞선 강한 대응과 투쟁을 분명히 하고 실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시·군 자립발전 토대 마련과 특히 재생, 농생명산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위원장은 “윤 정부의 퇴행을 막고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과 원팀이 돼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시스



전주시의회는 2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소통·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전주시의회 신년 인사회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 소속 의원들은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2023년 계묘년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일 의원들은 우병기 전주시장 및 집행부 간부들과 새해 첫 인사를 나누며, 올해는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인사회가 끝난 후 의원들은 전주 근경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기동 의장은 “지난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이은 조직 확대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지혜 모아 민생 살피고 시민 목소리 경청”

군산시의회, 새해 시무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근경묘지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계묘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근경묘지 참배 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중력이 산(策力移山)’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피고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강한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무척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과 주민 중심의 제도들을 전심전력 추진할 뿐 아니라 시민여러분을 직접 찾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락을 함께하며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지고 밀착형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잘한 부분은 유지하고 잘 못 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함은 물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토끼의 해에 걸맞게 토끼처럼 두 귀를 세우고 민중에게 발로 뛰며 분주히 움직여 시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 시대를 향한 벅찬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참된 일꾼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군산시의 합찬 도약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광곤기자

“새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 드릴 것” | 도의회 시무식... 새해 업무 시작

전북도의회는 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과 김양원 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23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작년 7월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해줬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올해는 제12대 도의회가 도민



전북도의회는 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과 김양원 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23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의 신뢰 속에 강한 의회를 확립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원과 직원과의 관계를 떠나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멋진 전북도의회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새해에도 도정과 교육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로 강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尹·김진표 선거구제 개편 언급... 논의 탄력 받나

尹 “진영 양극화... 중대선거구제 방안 검토”

김진표 “2월까지 개정안 제안... 전원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내선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내외 언론에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이다. 이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

한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진영 양극화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역시 지난해 7월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당시 “승자독식 패자잔羹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

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공판 초청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한다며 다음달까지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해볼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 개특위는 다음달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은 국회의원 당파들의 합의가 필요해 어떤 결과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여부를 가늠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뉴스시스



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최근 법률고문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제47회 사법시험 47회), 법률사무소 이장기 변호사(제11회 군법무관 시험)이다. 이들은 각각 법무부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원,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회관련 정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총8명의 입법·법률고문(입법고문 2명, 법률고문 6명)을 위촉·운영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입법과 법률고문 위촉으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가치 높이는 의정활동 펼칠 것”

무주군의회, 시무식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이 지난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3년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앞서 군의회 의원들은 총환담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새해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은 군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표창 수여, 의장님 신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해양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는 제9대 무주군의회는 무주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나날이 새롭고 또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람이 돌아오는 고창 위해 노력할 것”

고창군의회, 시무식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일 본회의장에서 임정호 의장을 비롯한 고창군의회 의원 모두와 심덕섭 군수,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임정호 의장은 시무식을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길 방향과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계묘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시 소중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이 잘사는 고창’ 사명이 돌아오는 고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23년 고창군의회는 집행부



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되고 비전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9일 제20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